

나가사키 부교쇼 옛 창고의 기리시탄 관련 유물

메이지 시대가 시작되기까지 그리스도교에 관한 물품은 현재 나가사키 역사 문화 박물관을 세운 자리에 있었던 나가사키 부교쇼(봉행소, 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관청)의 '슈몬조'에서 엄중히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리시탄을 적발하기 위해 신자에게 밝게 했던 '후미에'와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지고 온 성화상, 우라카미 산반쿠즈레 및 우라카미 요반쿠즈레(기리시탄들이 대거 적발된 사건)가 발생했던 당시의 몰수품 등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1867년, 우라카미 요반쿠즈레가 일어났을 때는 유배된 장소에서도 신자가 몸에 지니고 있었던 신앙 도구를 몰수하여 나가사키현으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1874년에 나가사키현에서 도쿄로 옮겨지면서 처음에는 메이지 정부의 교부성(敎部省)에서 관리했지만, 이후 내무성 사사국(社寺局), 박물관을 관할하는 내무성 박물관(博物館), 농상무성(農商務省)의 각 부처를 전전하다 최종적으로 박물관을 관할하게 된 궁내성(宮內省)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기리시탄 관련 유물은 1906년에 제실박물관의 제5회 특별전 '가에이(1848~1854) 이전의 서양 수입품 및 참고품'에서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기리시탄 관련 유물은 모두 도쿄 국립 박물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기리시탄 관련 유물은 1977년에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기리시탄 관련 유물의 분류

기리시탄 관련 유물은 1879년 12월에 내무성 사사국(社寺局)에서 내무성 박물관(博物館)으로 인계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장부에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와 기재가 없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1. '전 나가사키 부교쇼 슈몬조 보관'
2. '1856년 나가사키 부교쇼에 수납'
3. '1867년 나가사키 우라카미무라 기리시탄에 의해 수납'
4. '나가사키 우라카미무라에서 수납'

이에 도쿄 국립 박물관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내역이 기재된 것을 '나가사키 부교쇼 옛 창고'로, 내역이 불분명한 것을 '내무성 사사국(社寺局)에서 인계'로 분류했습니다. 1977년에 '나가사키 부교쇼 옛 창고'로 분류되었던 자료들 대부분이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쿄 국립 박물관에서는 나가사키와 깊은 관련이 있는 유물 외에도 교토의 후쿠치야마나 후쿠이의 기리시탄과 관련된 유물도 함께 소장하고 있습니다.